



속 모를 만두



정월 초하루 친정 엄마를 우리집으로 초빙해 만두를 빚었다. 옛날에는 만두가 상용식이 아니고 정초에 먹는 절식이며 고기만두는 경사스러운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흔하다 흔한 게 만두이다. 여러 브랜드에서 출시된 만두들은 예전에 비하면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제법 양호해졌고 곳곳에 만두 파는 식당도 많아 그 어떤 음식보다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내게 최고의 만두는 집에서 만든 수제 만두이다. 어려서부터 간편한 시판 냉동 만두를 주로 먹었던 우리 아이들은 만두 먹자고 하면 손사래를 칠 정도로 만두를 싫어하지만 할머니표 만두만은 맛있다고 한다. 전 세계를 감동시켜 국내외로 불티나게 팔린다는 대기업의 만두도 절대로 갖지 못한 담백함, 아무리 많이 집어먹어도 질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은 향긋하고 깔끔한 수제 만두 맛을 아이들도 귀신같이 알아내는 모양이다.

우리 엄마 만두가 세상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집집마다 만두의 달인들이 한 분씩은 있는 모양이다. 시집오니 시어머니 만두도 참 맛있었다. 시댁은 정초에 꼭 만두를 해 먹는데 시어머니는 만두피부터 도톰하게 직접 만드신다. 요즘 유행하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얇은 피 만두와는 거리가 멀지만 쫄깃한 식감이 기가 막힌다. 나는 지역별 음식 차이를 잘 알지 못하지만 경상도 출신의 시어머니는 만두국을 끓이실 때 일반적인 고기 육수 대신 멸치로 담백한 육수를 만들어내고 큰 사발에 국물은 자작하게, 만두는 가득 담아 주신다. 이 만두국은 자극적이지 않고 시원한 국물에 심플한 재료가 포인트로 많이 먹어도 속이 부대끼지 않고 참 편안하다.

만두는 겉만 봐서는 어떤 재료를 품고 있는지 그 속을 알 수 없는 음식이지만 솔직히 만두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조금씩 달라도 갖은 야채, 쪽 익은 김치와 고기를 얇은 탄수화물 피에 싸 먹는 개념 자체가 맛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구워 먹든, 튀겨 먹든, 찜 먹든 어떻게 조리하든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는 맛,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중국 딤섬과 완탕, 일본 교자, 멕시코 엠빠나다, 이탈리아 라비올리, 베트남 에그롤 등이 생각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나라에 비슷한 음식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대부분의 맛있는 요리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만두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 정성과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치찌개처럼 합부로 "만두나 해 먹을까?" 라고 내뱉지 못하고 나름 큰 결심을 하고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에야 만두를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만두소 만드는 과정이 참 번거로워 돼지고기, 소고기, 김치, 두부, 숙주나물, 당면 등 각종 재료를 다지고, 짜고 버무리는 어머니의 분주한 모습을 보고 있다면 '에이, 괜한 걸 시작했나? 그냥 사서 먹을 걸' 하고 살짝 후회가 밀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만두를 빚는 것은 꽤 재미있어서 온 식구가 함께할 수 있다. 엄마가 만두소 만드는 가장 큰 거사를 마치고 나면 나머지 식구들은 보통 이때부터 투입된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만두를 빚으려면 자연스럽게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들의 수다 타임이 펼쳐지기도 한다. 쉴 새 없이 떠들면서도 손은 연신

열심히 만두를 만든다. 소를 한 손갈 떠서 만두피 중앙에 올려놓고 검지에 물 한번 묻혀 만두피에서 속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모양을 잡고 잘 오므리며 오물조물하면 하나 성공. 조금만 욕심을 내도 만두가 터져 버릴 수 있어서 결국 소를 덜어내야만 하니 적당한 소 양을 파악하려면 서너 개는 만들어봐야 감이 온다. 그러나 한 열댓 개 만들고 나면 슬슬 재미도 없어지고 허리도 아파온다. 아직도 한가득 남은 만두소를 보며 한숨이 날 무렵 하나 둘 자리를 뜨지만 엄마는 일어설 수 없다. 저 멀리서 엄마 속 터지게 "도대체 누가 다 먹는다고 만두를 이렇게 많이 해?" 하는 타박 섞인 말도 들리지만 결국 그 많은 만두는 얼마 안가 등이 나버린다.

오늘 만두 빚기의 대장정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고생하는 엄마 속도 모르고 만두 찌지기 무섭게 집어 먹은 탓인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다'며 엄마는 또 아쉬워하신다. 엄마가 6시간 내내 앉지도 못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한 덕분에 당분간 온 가족이 맛있는 수제 만두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내가 먹은 만두는 그냥 음식이 아니요,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건강한 슬로푸드이자 치유의 음식이다. 정성이 담긴 맛있는 음식이 마법처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는 하루였다. 그리고 맛있게 잘 먹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이제 곧 만두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이주민'은 '재미교포 1.5세 이주민'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 새집 분양, 엘바인 및 레이크포레스드 여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562sf 대지 6,500sf \$550,000	요바린다 타운홈/콘도 방 3 화 3 2019년생 1,669sf 3층구조 \$73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05sf 대지 6,320sf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1 화 1 700sf \$2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1 1,100sf 넓은 대지 6,100sf \$59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40 sf 대지 6,000sf 완전 리모델링 한집 turn key \$690,000	요바린다 단층 하우스 방 2 화 2 1,056sf 대지 5,000sf 1984년생 \$540,000	부에나팍 단층 하우스 방 3 화 3 1,496sf 대지 5,150sf 한인 상권 가까운 곳 위치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83sf 대지 6,000sf 은행교회 아리랑마켓 가까운 곳 \$59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방 3 화 2 1,537sf 넓은 대지 7,000sf 좋은 학교 \$610,000	풀리톤 단층 하우스 전체 리모델 방 5 화 2 1,665sf 대지 7,500sf 새 부엌, 새 appliances move in ready \$690,000	풀리톤 타운홈/콘도 방 2 화 3 1,362sf 완전 리모델링한집 트로이고등학교 도보거리 \$540,000
엘바인 타운홈/콘도 방 2 화 3 새 마루 새페인트 1,460sf West Irvine \$650,000	엘바인 콘도 2006년생 1,052sf 방 2 화 2 일층 위치 fully furnished \$520,000	엘바인 콘도 방 3 화 4 1,590sf 2020년생 포틀라 Brisa \$728,000	엘바인 타운홈 2002년생 방 3 화3 1868sf 낮은 HOA 게이트 단지 \$789,000
*부에나팍 새집 분양 3층 구조 *교통과 위치 좋은 곳 1. 방 2 화 2.5 1,250sf \$500,000 부터 2. 방 3 화 3 1,500sf \$550,000 부터	*브레아 새집 분양 3층 구조 2,253sf 방 3개 부터 방 5개까지 탁트인 오픈 플로워 플랜* 학교 좋은 지역 \$690,000~	*위티어 새집 분양 2층 또는 3층 방1~방4 구조 900sf 부터 1,950sf까지 최신 시설 커뮤니티 센터 (피트니스, 수영장 등등)	라미라다 시니어 단지 방 1,2,3 (55세 이상) 24시간 가드 상주 넓은 게이트 단지 한국 마켓 가까운 곳 위치 \$290,000~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귀하의 집을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명예부사장
 Honorary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949.501.8555
 Irvine: 8 Corporate Park #220